



‘청춘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세월은 주름을
늘려도 열정을 사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을 가꾸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갈채를 보냅니다.



주택연금

시니어라이프 종합 매거진 Vol. 14

HF SPECIAL

영원한 우리들의 씨시봉, 윤형주

BEAUTIFUL LIFE

S-train, 남도해양열차는 가을풍경을 싣고

WISE SENIOR

고부갈등 vs 장서갈등? 이제 그만

HF TODAY

다람쥐부부의 노후실험, 주택연금



가을
2015

가을
3년의 역신
37년의 역화
30년의 성장

인생의 실타래



〈주택연금〉 가을호가
추억 속에 저장된 가지런한 이야기들을
한가득 싣고 찾아갑니다.
찬찬히 넘겨보는 인생의 페이지,
그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C O N T E N T S



가을의 선물 추억 새기기

04 권두칼럼 |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HF SPECIAL

06 주택연금이 만난 '꿈꾸는 시니어' | 가수 윤형주
10 테마 이야기 | 시니어, 소비시장을 뒤흔들다
12 HF 초점 | 부모와 자녀의 꿈을 지켜 드립니다

BEAUTIFUL LIFE

14 또 다른 여정 | 남도해양열차는 가을 풍경을 싣고
18 문화를 읽다 | 시니어 패션을 말하다
20 건강, 이것만 챙겨도 | 익숙한 불청객, 감기와 독감
22 세계는 100세 시대 | 시니어들의 축제, 일본 넌린픽

WISE SENIOR

24 시니어 트렌드 | '아·자·씨'들의 특별한 삼시세끼
26 알수록 든든 | 고부갈등 vs 장서갈등, 이제 그만
28 파이낸셜 TIP | 저금리시대, 은퇴월급 만들기

HF TODAY

30 고객체험수기 | 다람쥐부부의 노후쉼터, 주택연금
32 HF 소식 | 오늘의 주택금융공사
33 활력통신 | 시니어 이모저모
34 찾아가는 독자평가회 | 명예홍보대사 황옥순 씨

발행일 2015. 9. 1 **발행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발행인 김재천 **편집인** 류기운 **기획** 손진국 **윤자은**
에디터 제민주 **최명신** **윤망울** **사진** 김재경 **디자인** 이영환 **우선정** **김아람** **최연희**
인쇄·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공기업입니다.
주택연금 소식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주택연금-주택연금 홍보관'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고
서서히 익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뜨겁거나 혹 차가워서
다가서지 못했던
일, 또는 사람
이제는 손 내밀어 볼까요.

차곡히 쌓아온 인생의 실타래,
가을이라는 적당한 온도를 만나
반추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 돌아봄 속에서 느낄 테지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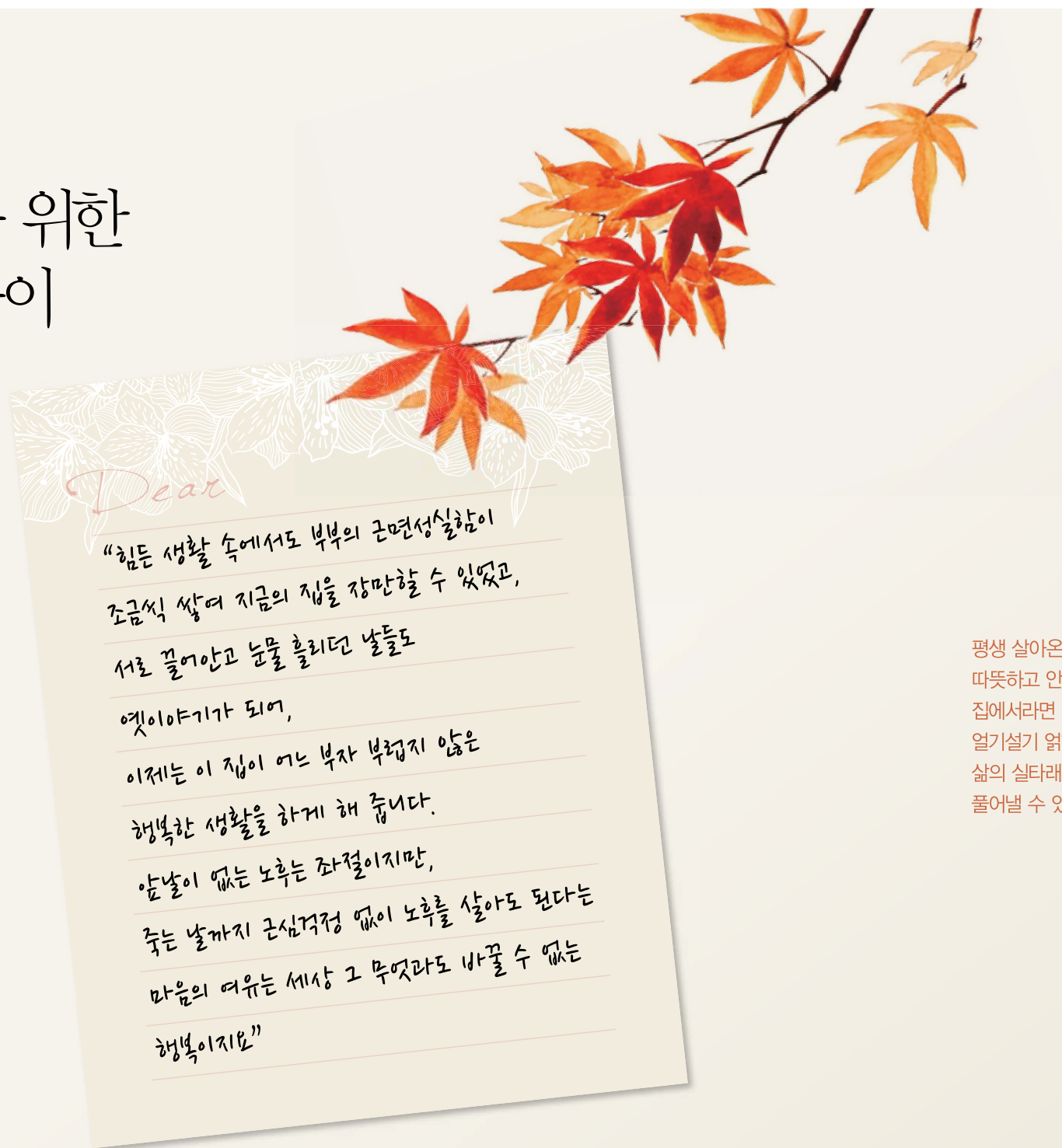
가을의
추억

행복한 노후를 위한 튼튼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글_ 김성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기금사업본부장



지난 여름, 주택연금 가입고객으로부터 받은 정성어린 손편지입니다.
매년 보내 드리는 안부편지에 대해 이렇듯 관심과 애정을 담아 답장해 주시니,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음 하나로 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지요.



Dear
“힘든 생활 속에서도 부부의 끈연성실함이
조금씩 쌓여 지금의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던 날들도
옛이야기가 되어,
이제는 이 집이 어느 부자 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 줍니다.
앞날이 없는 노후는 좌절이지만,
죽는 날까지 근심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도 된다는
마음의 여유는 세상 그 무엇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지요”

평생 살아온
따뜻하고 안정된
집에서라면
얼기설기 얇힌
삶의 실타래도 마음먹고
풀어낼 수 있겠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담당이사 김성수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물러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매년 계절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할 만큼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퇴를 맞으신 어르신들에게 가을은 이제껏 쌓아온 추억을 하나둘 꺼내어 인생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생활비 부담으로 소극적인 인생 후반기를 보내기보다, 주택연금을 통해 넉넉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 집에 거주하며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최적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주택연금은 올해 출시 8주년을 맞았고, 지난 7월에는 가입고객이 2만 6천여 명을 넘어 셧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사는 가입비 인하, 복수 기준금리 체계 도입,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거주 하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되어도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택이 노후할 경우 재건축 등을 예상해 가입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빛나는 청춘을 바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우리는 가족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소중한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인생 2막을 위한 새로운 동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살아온 따뜻하고 안정된 집에서라면 얼기설기 얇힌 삶의 실타래도 마음먹고 풀어낼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저희는 집의 가치와 노후의 안정을 함께 지켜 드리는 든든한 지원군이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기금사업본부장 김 성 수

영원한 우리들의 췌시봉

윤형주

글_ 제민주

c'est si bon

또렷한 눈빛은 검은색 뿔테 안경 속에서 더욱 반짝였다. 가려진 부분 사이로 보이는 수려한 외모. 그런 그에게서 미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음악감상실 췌시봉(‘아주 멋짐, 매우 훌륭하다’는 뜻)에서 소녀 팬들이 외치던 그 이름, 윤형주. 세월은 꽤나 흘렀고, 고개를 바라보는 노신사가 되었지만 음악 앞에서의 모습은 50년 전 청춘 그 대로다. 음색도, 열정도 한결같은 노래하는 통기타리스트, 그를 만났다.

“음악을
향한
한결같은
꿈
그래서
멋진
이름

윤형주

- 01 오는 추석(9월 26일~27일) 열리는 췌시봉 콘서트의 포스터
- 02 트윈폴리오 해체 후 11년만의 앨범으로 다시 만난 윤형주, 송창식
- 03 박3 음반 (하나의 결이 되어)에 들어갈 노래를 녹음하는 김세환, 윤형주, 송창식

왕년의 포크 스타, 사랑을 위해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서울시 무교동의 한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포크음악 열풍. 그 주역은 단연 환상적인 하모니의 주인공, ‘췌시봉 친구들’이었다. 윤형주, 송창식, 조영남, 김세환, 이장희 등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췌시봉은 유일한 무대이자, 든든한 아지트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성된 트윈폴리오(윤형주, 송창식)는 곧 무교동이 아닌 전국을 주름잡기 시작했다. 기타와 목소리의 담백한 조화가 빛어낸 음악은 따뜻하고 진솔한 가사와 함께 ‘진짜 노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 그곳에 윤형주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이십대 초반이었는데, 운전기사가 있었죠. 제 머리카락을 뽑아가는 팬도 있었어요. 저희의 노래에,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게 열광해준 그 사랑이 지금도 너무나 고마워요.”

트윈폴리오의 가사는 서정적이다. 때론 아련했고, 그래서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노래하는 그들의 음악 속에는 요즘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젊은 친구들의 사랑 방식을 보면 내 것, 네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노래 가사가 대부분 그래요. 짝사랑이나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경우가 줄었거든요. 사랑의 공유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을 알고, 사랑을 아는 것. 사랑 노래만이 선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전 늘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의 사랑은 남녀간의 보편적인 사랑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웃을 향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향해, 그리고 세계 여러 인종을 향해 곳곳으로 이어졌다. 4대째 신앙생활을 이어온다는 윤형주의 종교생활 역시 인터뷰에서 빠질 수 없는 화제였다.

“음악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 혼자보단 함께할 때 얻는 기쁨이 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멘토를 하고 있는데 성공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부터 청년들의 인생관을 지켜주고 싶어요. 가끔 해외 선교사를 도와 봉사하기도 해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관련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신대학교에서 명예선교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I.A.K., 한국십대선교회, 한국해비타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윤형주의 이름이 동행하는 모든 곳에서 그가 가진 따뜻한 가치관이 전해지고 있었다.



01



02



03



음악과 가족의 교집합, 그것이 인생

음악인생 50주년을 바라보는 윤형주의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하게도 두 가지 주제가 만나는 교차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건 바로 ‘가족콘서트’. 지난 2003년 7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윤형주의 가족콘서트는 일반인이 공연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르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다.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공연 의사를 내비치니 한국에서 통기타 음악을 중심으로 청년문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처음에는 가족들은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어요. 오기가 생겼죠. 가족 콘서트의 구체적인 순서와 함께 한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다시 연락했고, 결국 허가를 받았어요. 1년의 준비기간을 가졌고, 결국 카네기홀 아이작스턴홀에 설 수 있었어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두 사위와 아들까지, 7명의 식구가 무대에 올랐다. ‘하얀 손수건’, ‘비의 나그네’, ‘조개 껍

질 묶어’ 등 윤형주의 히트곡을 비롯해 음악을 전공한 두 딸이 재즈와 성악을 선보였다. 각기 다른 음악적 재능으로 뭉친 한 가족이 카네기홀을 찾은 2,800여 명 관중 앞에서 실력을 드러냈다. “너희들은 카네기홀에서 데뷔한 아이들이다. 어느 무대든 서라. 이게 아빠가 주는 선물이다.” 음악인 윤형주 너머로 아버지 윤형주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이 느껴졌다.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윤형주. 그는 음악이 불러 모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삶을 노래하고, 끊임없이 희망을 전하고 있다.

“공연 마지막에는 늘 다 함께 이 말을 외쳐 보자고 해요. ‘오늘은 우리 남은 생애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끝을 생각하곤 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든 내일은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란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사치레 하듯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 그가 삶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깨달은 진정한 조언이자 진심어린 당부 이기에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다.

- 01 여전히 기타실력과 음색으로 관중을 사로 잡는 윤형주
- 02 한빛기획 녹음실에서 만난 윤형주
- 03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출연한 세시봉 친구들(윤형주, 김세환, 송창식, 이장희)



풍요로운 대화의 비법, 윤형주의 비밀 노트

윤형주는 대단한 메모광이다. 28줄짜리 대학노트 한 페이지를 일주일치 스케줄표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일주일을 위한 메모장으로 쓸 경우, 한 권의 대학노트에 5년의 기록이 남는다. 올해로 30년째 메모를 남기고 있는 그의 노트에는 오늘 기자와의 만남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의 일정과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둬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언제 만났는지를 떠올려 보죠. 노트를 찾아보면 그 사람과 당시 주고 받았던 간단한 대화내용이 기억나요. ‘우리 3년 만에 다시 만났군요’, ‘아이는 잘 크고 있나요?’와 같은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죠. 이 노트 덕분에 대화가 아주 풍요로워지는 걸 느껴요.”

규칙적인 메모의 습관이 지금의 윤형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터. 과거의 기록은 물론 다가올 계획도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앞으로의 스케줄이 궁금했다. 그의 영원한 친구들, 세시봉 콘서트가

눈에 들어왔다.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9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가집니다. 조영남, 김세환 씨가 함께해요. 그리고 트리오세시봉(트윈폴리오의 전신)의 원년 멤버 이익균 씨도 무대에 오를 거고요. 아끼는 후배 가수 조정민 씨는 게스트로 인사드릴 겁니다. 저희만의 노래가 아닌,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공연을 통해 만나는 시니어 관객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선물하는 윤형주. 그는 앞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신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이 열정으로 반짝인다.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 시대만의 감성을 들려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까. 음악과 우정, 그리고 폭넓은 사랑을 연료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 윤형주를 통해 시니어들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매섭게 부는 시니어 시프트 바람 소비시장을 뒤흔들다

글_ 최명신



이전 세대보다 지갑이 두둑하고, 돈 쓸 시간과 체력, 적극적인 소비성향까지 갖춘 시니어들이 소비시장의 중심에 우뚝 서고 있다. 대한민국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22조 원 가량. 최근 50, 60대 시니어들이 20, 30대 못지않은 쇼핑계의 큰 손으로 부상하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중·장년층 고객을 잡으려는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쇼핑업계, 미션 “액티브 시니어를 잡아라”

일반적으로 노령인구 증가는 소비성향의 감소로 이어져 유통업계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통한다. 소득감소와 부족한 노후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롯데미래전략센터에 따르면 60~7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 0.75%에 달했던 60대 가구주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 2013년엔 0.69%로, 70대 가구주의 경우에도 0.90%에서 0.75%로 푹 떨어졌다.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는 다르다. 이들은 여가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의 新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한 유통업계의 마케팅도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소비의 중심축이 중년에서 장년으로 옮겨가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는 한국 사회에서 액티브 시니어만한 새로운 성장동력도 없기 때문이다.

시니어, 新마케팅 전쟁의 핵심 키워드

국내의 경우 액티브 시니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가리킨다. 한국전쟁 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축적한 경제력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이른바 ‘돈 쓸 줄 아는 세대’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객의 백화점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의 경우 60대 이상 고객의 매출 구성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10%를 넘어섰다.

현대홈쇼핑은 2013년, 업계 최초로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해 ‘포낙 보청기’를 방송했다. 한 가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아야 하는 홈쇼핑의 특성상 소비층이 한정된 상품은 판매하지 않지만,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마케팅 전략에 전면 수정이 가해진 것이다. GS숍 역시 2013년에 50대 맞춤형 인터넷 쇼핑물 ‘오아후’를 열고 인터넷 사용에 서툰 중·장년층을 위해 전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아후는 ‘50대부터 시작하는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쇼핑물’의 줄임말이다. 또한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 채널 옥션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모바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50대 중·장년층의 매출 구성비가 35%로 늘어났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간소화로 접근성·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니어들의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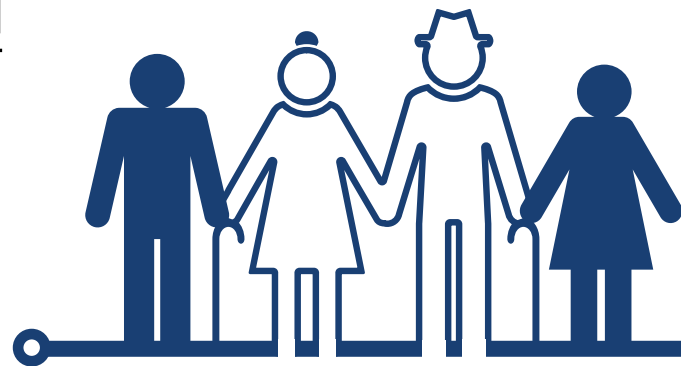
시니어 마음을 읽는 기업, 정책적 보완에 나서는 정부

LG경제 김재문 수석연구위원은 ‘시니어 마케팅의 출발점’이라는 연구에서 “시니어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며 “시니어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읽는 기업이 미래의 마케팅 전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다”라고 말한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홍보마케팅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중·장년층이 진정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기업이 新마케팅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액티브시니어는 기존 어르신 세대와는 전혀 다른 소비·활동 성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정관념을 버리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장년층의 소득 안정성 제고, 소비 여력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꾸준한 국가성장을 위해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내수경기를 촉진하고 기업성장을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저성장의 덫에 빠지기 쉬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가 함께 노력한다면, 새로운 소비 콘텐츠 형성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세대대가 넉넉하고 행복한 사회로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연금 하나면 자녀는 안심 부모는 행복

정리_ 주택연금부



최근에 '자녀가 원하는 주택연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주택연금이 최고의 효도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매달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은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가능케 하는 선물인 셈이지요. 올 추석에는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따뜻한 한마디와, 온 가족의 마음에 여유를 선사할 '주택연금'으로 함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택연금, '효도'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켜온 부모님의 평생.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차례입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는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위해 주택연금이 함께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

주택연금 가입요건

연령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부모님의 평생이 든든합니다

배우자 연금 100%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감액없이 연금 100% 지급	합리적 상속 연금지급총액 > 주택처분금액 차액납부 의무 없음 연금지급총액 < 주택처분금액 상속인에게 차액 상속	다양한 세제혜택 재산세 25% 감면(15,12,31 限) *5억 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안정적생활보장* 이사를 해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어도 주택연금 계속 이용 가능!
--	--	--	--

*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주택연금 유지 가능 주택연금 이용 도중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이 되어도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32쪽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미소 짓게 합니다

연금지급 기간과 수령방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실속 있는 노후 계획이 용이합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안정적 성향의 고객 정액형 평생 동안 동일한 월지급금 수령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고객 증가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	활동 축소가 예상되는 고객 감소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감소	고령, 은퇴 초기, 자금필요 고객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70%만 수령

주택연금 하나면 자녀는 안심, 부모는 행복

부모님이 항상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 새로이 시작하는 부모님의 눈부신 청춘! 부모와 자녀 모두의 꿈을 지켜 드리는 주택연금 하나면, 자녀는 안심, 부모는 행복!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8만 6**천 원을 수령
- 누적가입자 **26,187**명(2015년 7월 말 기준)





S.train

남도해양열차는 가을 풍경을 싣고 ~

글_ 제민주

쉬는 것도 분주한 계획으로 바쁘게 보내려는 사람들. 그 속에서 '진짜 힐링'과 '진짜 여행'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느릿느릿, 천천히 여행지를 만끽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시간. 이러한 여행길에 오르기 원한다면 코레일의 S-Train 여행코스를 추천한다. 구불구불 남해안의 해안을 닮은 곡선의 기차길이 남도의 풍경과 향기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슬로우 트레인'이라는 별칭답게 천천히 남도를 음미하러 가는 길, 그곳에 우리의 가을을 맡겨보자.



- 01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인 남도를 표현하기 위해 거북선으로 디자인된 기관차 외관
- 02 섬진강변 일대를 관광할 수 있는 곡성군 레일바이크를 즐기는 관광객들



01



02

남쪽(South), 바다(Sea), 느림(Slow)의 3박자, S-train

남도를 표현하는 갖가지 이미지와 색상으로 꾸며진 남도해양관광열차 S-Train, 거북선을 형상화한 기관차 외관과 남쪽(South), 바다(Sea), 느림(Slow)에서 공통적으로 따온 첫 글자 'S'를 붙인 이 특별한 관광열차는 부산과 보성을 잇는 4871-4872열차와 서울에서 여수EXPO를 잇는 4873-4874열차가 하루 한 번 종착역을 기점으로 왕복 운행된다.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사이, 남도의 멋을 누릴 수 있는 여러 정차역을 연계해 며칠간의 일정으로도 실속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부산과 서울에서 출발해 본격적으로 남도로의 진입을 알리는 그 순간부터, 더욱 천천히 그리고 여유있게 여행의 순간순간을 즐겨 보도록 하자.

곡성 & 구례

곡성역에 내리면 섬진강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이 곧바로 이어진다. 기차마을에서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등 철도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탈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레일바이크 체험은 침곡역과 가정역을 들르며 섬진강변 일대를 감상하기 제격. 기차마을 내 위치한 장미공원은 1,000여 종이 넘는 품종의 장미를 확보한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원 장미를 확인할 수 있다. 곡성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 구례역에 다다른다. 순천시 황전면에 속한 구례역은 한옥을 빼닮은 역사가 인상적이다.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수락폭포의 물줄기가 가을을 닮은 청량함으로 여행객을 맞이하고, 국립공원 1호에 빛나는 지리산과 그곳에서 만나는 화엄사 역시 구례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관광지가 된다.



순천 & 여수



남도 여행의 중심축, 교통의 요충지, 대한민국생태수도라는 그 어떤 애칭도 거뜬히 소화해내는 도시, 순천.

이곳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출발하는 남도해양관광열차의 두 선로가 맞닿는 유일한 역, 순천역이 자리한다. 부산에서 여수여행을 떠나려는 이들도 S-Train을 이용해 순천역에 내린 후,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순천만국제정원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서는 도시와 습지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드라마세트장, 낙안읍성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타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해 순천은 남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거점으로 사랑받는다. 순천역 다음으로 이어지는 4873호 열차의 정착지, 여수EXPO역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매일 밤 여수의 하늘을 수놓는 빅오쇼*를 비롯해 생동감 넘치는 해안도시 여수의 면면을 살펴보고픈 이들에게는 종착역 여수EXPO가 진정한 여행길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큰 원(Big O)을 이용한 물, 불, 레이저 쇼

득량



보성군에 속한 득량. 임진왜란 당시 '식량'을 조달한 곳이란 뜻에서 현재의 이름이 유래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

되며 득량역 앞에는 '문화역'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역 주변에는 1970년대 거리가 조성되어 아련한 옛 추억을 생생하게 더듬을 수 있다. 문방구, 이발관, 만화방, 다방, 상회 등을 거닐다 보면 구수한 옛 노래를 저절로 흥얼거리게 된다. 주변 관광이 용이하도록 역사 내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으며, 라면탕, 달고나 등 추억의 먹거리도 체험을 통해 맛볼 수 있다. BB탄 총알을 장전한 장난감 권총, 건담과 아톰 등 당시 어린이들이 사랑한 만화캐릭터와 장난감으로 동심과 추억의 아이콘이 된 득량역은 과거 어느 작은 간이역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역으로 우뚝 섰다.

보성 & 벌교



녹차하면 보성, 보성하면 녹차. 이 절대적인 등식관계는 보성의 푸름을 더욱 배가시키는 이유가 된다. 특히

170여만 평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다원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되며 보성 녹차밭을 전국에 알리는 데 일조했다. 짙은 녹색의 계단식 차밭은 그 이름만으로도 싱그러움이 한가득 차오르는 듯하다. 안개가 덮힌 새벽과 맑아진 아침, 그리고 해질 무렵 등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운치를 선사하는 이곳은 이제는 보성, 그 자체가 되었다. 아울러 향토시장, 한국차박물관 등 정감 있는 장소들 또한 만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보성과 순천 사이, 작지만 존재감 하나는 확실한 벌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남도 여행지다. 소설가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이기도 한 이곳은 곳곳이 살아있는 문학의 현장으로 유명하다.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꼭 한 번 들러보길 권한다.

Tip

S-train, 남도해양열차 알아보기

1호차



“힐링 여행을 위하여!”
기본석 64석/전망석 4석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닮은 바닥과 하늘을 나는 학을 연상시키는 천장. 남도의 붉은 동백꽃을 상징하는 좌석 시트와 전통 담장 문양의 벽까지. '남도 해양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1호차.

2호차



“가족과 함께 떠나는 남도여행”
기본석 40석/가족석(4인) 28석/수유실

1호차와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2호차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 옷걸이를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가족석과 함께 기본석, 수유실이 구성되어 있다.

3호차



“먹고, 즐기고, 그래서 행복하고”
커플룸 8석/식당석 22석/카페석 14석

달리는 기차 안의 황홀한 레스토랑. 3호차는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길 원하는 남도식도락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울러 '득량역'에서 나온 '추억의 거리' 축소판이 3호차의 새로운 테마로 자리 잡으며, 옛 교복체험, 땅따먹기, 딱지치기 등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4호차



“다도의 고장, 여기는 남도 가는 길”
기본석 36석/다례실좌석 22석

다도의 멋을 오롯이 재현한 공간, 바로 다례실이 마련된 4호차다. 보성군과 하동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례체험실을 열차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좌식으로 구성된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앉아 차 본연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5호차



“와자자! 사골백제! 이것이 여행의 묘미”
기본석 42석/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함

기차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남도해양열차의 다섯 번째 칸! 즐거운 노랫가락과 여행객의 흥이 만나 펼쳐지는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또한 남도 트레킹을 즐기는 여행자들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다.

중후한 노련미로 젊은 감각을 수놓다

글_ 윤망울

젊은이들 못지않은 패션 감각을 겸비한 '꽃중년'이 늘고 있다. 뽀뽀하게 다려진 하얀 셔츠, 점잖은 넥타이로 묵직하기만 했던 옷장에 '젊은 감각'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격식 있고 중후하게, 하지만 때때로 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빛어 낸 꽃중년 스타일엔 젊은이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다.



- 01 스트라이프 셔츠와 도트 무늬 타이로 센스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 02 부산에 위치한 남성 편집숍 '매료(maeryo)'
- 03 재단 중인 여용기 씨



도전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패션디렉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미중년으로 알려진 '닉 우스터'. 우리나라에도 그에 버금가는 멋쟁이 노신사가 있다. 잘 빗어 넘긴 은발과 둥그란 뿔테 안경에 딱 떨어지는 정장이 잘 어울리는 여용기 씨(63)다.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매료(maeryo)'라는 남성 편집숍에서 마스터 테일러로 일하는 그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이미 여러 번 매스컴을 탄 유명인사다. 17세부터 재단을 배워 양복점을 운영하기도 한 그는 맞춤형 제작에 있어서는 프로 중의 프로다. 기성복이 번성하며 고비를 겪기도 했지만, 그는 그 시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고루한 스타일을 버리고, 2, 30대들을 보며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오늘'과 소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도 운영하며, 젊은 층까지 열광하는 트렌디함을 겸비하게 됐다.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스타일을 바꾸게 됐죠. 물론 변화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이젠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라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으로 색다른 자신을 발견한 여용기 씨.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외적인 연출과 트렌드 또한 놓치면 안 된다는 직업의식이, 노련미와 젊은 감각을 갖춘 오늘의 그를 탄생시켰다.

흰 머리칼, 감각적인 안경... 조금은 빈티지한 오늘

옷을 만든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올해 63세인 그에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때문에 아침마다 등산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젊은 감각을 기르기 위해 쇼핑과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기회가 되면 해외도 가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엔 이탈리아에서 유명 디자이너들과 대화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대하는 여용기 씨. 그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멋지게 나이든, 꽃중년 그 자체였다. 또한 은빛 머리칼은 그간의 세월을 드러내는 나이에이자, 그의 완벽한 패션의 한 부분으로 녹아든다. "예전엔 염색하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그대로 놔둡니다. 염색을 하지 않고서부터 이렇게 흰머리가 많았나 놀라기도 했어요." 은발과 함께 원형의 검은 안경테도 자연스러운 멋을 더한다. "아무거나 까다가, 이젠 눈에 띄는 멋진 제품이 보이면 구입합니다." 요즘은 아세테이트, 금속 프레임이 결합된 하급테가 대세. '안경도 패션 아이템 중 하나'라는 그의 말처럼, 도수를 넣지 않은 안경 하나로 패션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자신만의 무드^{mood}로 모두를 현혹시키다

거리를 거닐고,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그의 일상은 인스타그램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패션만큼은 비범하다. 특히 스트라이프 셔츠와 도트 무늬 타이로 멋을 낸 사진은 유독 인상 깊다. "패턴의 조합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는 센스 넘치는 코멘트는, 패턴이 있는 것끼리 매치하지 말라는 상식을 거스른다. 색상 역시 굳이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색이 있어야겠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제격이죠. 색상 조화만 잘 맞다면요. 겹옷이 남색일 때 붉은 계열의 타이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아요. 올 겨울엔 브라운 계열의 부츠로 멋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의 패션엔 거창한 공식이 없지만, '여용기'라는 자체로 동년배들에게 자극이 된다. "달라붙는 바지 때문에 좌식 식당에서 고생한 적이 있지만 나이 들었다고 통 넓은 바지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의 불편함이 뒤따르긴 한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익숙한 자신을 넘어선 용기로, 오늘의 차림새에 자신만의 무드를 물들여 볼 시간이다.

감기와 독감 익숙한 불청객을 대하는 방법

글_ 오인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낮선 증후군이 우리들의 여름을 강타했다.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메르스는 잠잠해졌지만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그 빈자리에 감기가 찾아들고 있다. 노년층과 호흡기질환 환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 감기와 독감. 메르스 사태를 맞았던 지난 여름을 기억하며 '익숙한 불청객'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가 왔다.

MERS-CoV

감기와 독감 이해하기

감기(순 우리말로로는 고뿔)는 감한기라고도 불리는데, 한자로 느낄 감(感), 찰 한(寒), 기운 기(氣), 즉 차갑거나 보통 같지 않은 기운을 느낀다는 뜻이다. 아데노바이러스나 리노바이러스 등 수십여 종의 바이러스가 단독 또는 혼합해 사계절 내내 감염시키는 질병으로, 성인의 경우 한 해에 3~4회 정도 앓고 특별한 후유증은 남지 않는다.

독감(毒感)은 독할 독(毒)자를 써서 '독에 걸린 것처럼 매우 위험한 감기'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그대로 바이러스 이름을 딴 인플루엔자(flu)라고 부르며, 통상적인 감기와는 다른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감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열과 함께 팔, 다리, 허리 등의 심한 근육통과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동반된다. 후유증으로는 경련, 혼수상태, 급성기관지염, 폐렴을 일으켜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가을, 감기 예방의 적기를 공략하자

개인위생 관리와 더불어 매년 가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예방효과가 크다. 주사를 맞으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2주 이내에 생기게 되는데, 4주가 되면 항체가 최고치에 달하게 된다.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약 5개월 정도 유지된다. 대개 1월에서 3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의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또한 항체 유지기간이 한계가 있고,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 종류가 수시로 바뀌므로 접종은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예방 효과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른데 대개 60~90% 정도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독감에 걸리더라도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독감 예방주사는 누구나 다 맞을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이 심할 수 있는 고위험군(노약자나 임신부 등)이나 이들에게 독감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의 대상이 된다.

건강의 시작, 기본에 충실한 생활습관에서부터!

환절기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호흡기 증상의 대부분은 사후관리가 쉬운 감기이지만, 제아무리 '익숙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예방을 허투루 할 수는 없다. 더구나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독감 합병증의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불시에 찾아와 큰 병으로 커질지 모르는 독감에 대비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건강함'에 깨어있는 것이 아닐까. 환절기에도 꼬떡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꾸준한 건강체크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감기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외출 후엔 반드시
손 씻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생활 리듬 유지하기



과로, 과음, 흡연
자제하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식사 후, 잠들기 전
양치질 하기



비타민C 섭취하기

길어지는 노후생활, 숙제 아닌 축제로 풀다

글_윤망울

일본은 세계 최장수 국가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가 넘고, 100세 이상의 노인만도 6만 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길어진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 교육, 취미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 일본은 시니어들을 위한 축제, '넌린픽'을 통해 고령화에 대한 해답을 축제로 풀어나가고 있다. 다양한 운동과 이벤트로, 시니어들의 삶을 유익하게 채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시니어, 그리고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

후생성(우리의 보건복지부와 유사역할 수행) 창립 50주년이 되는 1988년부터 시작된 전국건강 복지축제 '넌린픽'은 일본의 대표적인 시니어 축제다. '넌린픽'은 '연륜(年輪)'과 'Olympic'의 'pic'을 조합한 합성어로 '연륜 올림픽'이라는 뜻.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어린이부터 젊은이 들까지 모든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열린 장이라는 점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야마구치현에서 열리며, 각 시·도를 대표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참여해 스포츠,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승패를 겨루게 된다.

굴지의 규모를 자랑하는 넌린픽은 매년 진행되는 4일 동안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여 한다. 이 축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 안 자국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건전하고 활기찬 장수사회 형성에 기여하고 있 는 것이다.



사진출처_ 후생 노동성

스포츠, 문화, 예술에 걸친 다양한 이벤트의 향연

'생명 빛나는 장수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를 시작으로, 넌린픽은 매년 새로운 테마로 개최 된다. 탁구, 테니스, 골프, 마라톤 등의 '스포츠 교류대회'를 비롯해 바둑, 일본장기, 건강 마작 등이 펼쳐지는 '문화 교류대회' 등을 통해 시니어들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여러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 도 이채롭다. 다양한 세대가 음악과 전통 예술 등을 선보이는 '음악문화제'와 노년의 건강, 삶의 보람 등을 주제로 열리는 각종 '심포지엄'이 바로 그것. 올해는 음악 문화제와 심포지엄에 각각 1,5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분명 승리를 위해 경쟁하는 올림픽이지만, 참가자들이 맹목적으로 승패에 연 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달 숫자 또한 발표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그저 자신의 기량을 선 보이며 경기 그 자체를 즐긴다. 시니어들은 젊은이들 속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젊은 세대는 그 런 시니어들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다.

'혼자' 아닌 '함께'라는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노년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노후의 삶 또한 그 자체로 '축복'이자 '선물'이 라는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일본. 참신한 발상으로 시작되어 고령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넌린픽'으로 오늘도 그들의 노후는 빛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넌린픽처럼 시니어들이 스포츠와 문화에 걸쳐 승패를 겨루는 큰 규모의 대회는 아직 없다. 물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는 있지만, 그 취지와 규 모, 영향력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일본 못지않게 급속히 고령화를 맞고 있는 우리 나라에도 중·장년층이 삶의 목표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축제' 기획이 필요하다. 노년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이름으로 더욱 빛나는 시기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화합의 장'을 가질 때, 노년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충만해질 것이다.



'아·자·씨'들의 이유 있는 반란 그들의 특별한 삼시세끼

글_ 윤망울



셰프들은 물론 연예인들이 요리 실력을 뽐내며 방송가를 점령했다. 이른바 남성을 필두로 한 '쿡방(Cook+방송)'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요리는 '여자의 전유물'이라는 낡은 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요리를 배우는 남성 시니어들 역시 늘어가고 있다. 은퇴를 대비해 새로운 직업으로, 혹은 취미로 요리를 즐기는 그들. 솜씨는 서툴지만 열정만은 그 어느 젊음에도 뒤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남자들이 틔우는 저마다의 씨앗

최근 구청, 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남성들을 위한 요리강습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중 구로구청이 마련한 요리교실은 조금 특별하다. 은퇴 후 제2막을 준비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삼시세끼 아·자·씨'.

'아·자·씨'는 '아름다운 남자들의 은퇴 후 씨앗 만들기'라는 뜻으로, 참살이 요리 교실, 약용식물·발효식품반 등 여러 개의 반이 운영된다. 모집 인원 초과 시 50대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수강생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 아내에게 근사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또는 은퇴 후 혼자서 밥을 차려먹기 위해, 각각의 사연을 가진 지원자들이 투박한 손끝에서 제법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어 낸다.

주방을 점령한 그들의 열정이 뜨겁다

스무명씩 3개 반, 총 60명의 수강생들은 매주 한 번씩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모인다. '참살이 요리교실'에서는 기본 칼질부터 위생, 영양 교육, 저염 및 천연조미료를 활용한 음식 조리 등 가정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요리법을 학습한다. '약용식물·발효식품' 반에서는 약용식물과 발효식품의 기초이론 및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담당자는 수강생들의 소감을 통해 요리교실을 향한 그들의 열띤 호응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한다. "참여하신 분들이 수업 내용에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다른 종류의 요리교실도 열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리교실 수강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지만 열의만큼은 젊은층 못지 않다는 말이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요리, 아내를 위한 선물이자 노후를 위한 대비" 참살이 요리교실의 유창훈 씨

참살이 요리교실의 수강생인 유창훈 씨(57세)의 일상은 수업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끔씩 가족들에게 요리해주는 재미가 쏠쏠하죠. 주로 영양밥, 강된장 등의 한식을 해주는데, 반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더 요리할 맛이 나요." 특히 그는 30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 기쁘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근 아내의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 가장 큰 것이 요리였죠."

평소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그에게는 모든 수업 내용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니 모든 게 유익했죠. 컵 계량, 물 조절 등 하나하나 깨우치는 매 순간이 새로워요. 아내는 물론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은 둘째 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건설업에 종사 중인 그에게 요리는 언제 올 지 모르는 은퇴를 위한 든든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은퇴 후엔 아내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때 정성껏 요리를 해주는 것만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없죠.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축내는 삼식이는 벗어나야죠(웃음)."

아내와의 분위기를 쇄신시켜주는 일등공신이자,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 된 요리. 유창훈 씨처럼 아름다운 중년 남성들의 맛있는 도전은 앞으로도 오래 이어질 듯하다.



고부갈등 vs 장서갈등? 명절 뒤끝 이제 그만!

글_ 최명신

바야흐로 ‘황혼육아’ 시대다. 맞벌이는 날로 늘어가고, 보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선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갈등도 존재한다. 가족인 까닭에 서로 불만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고부갈등 또한 세대에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요즘은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 즉, 장서갈등도 만만찮다. 과연 이번 추석, 안녕들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웰컴 투 시월드 & 처월드, 명절나기 쉽지 않네!

어느 시월드(처월드)의 이야기



며느리 회사는 어떻게 된게 명절만 되면 일이 생기나요? 한 번은 팔에 깁스를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우리 사위는 처가엔 전화 한 통 없으면서 내가 무슨 말만하면 잔소리래요. 상전이 따로 없어요.”

어느 며느리(사위)의 이야기



“사이드 좋지 않은 시누이 얼굴은 왜 보고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된통 당했는지... 말도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황혼육아, 당연한 게 아니라고!

어느 시어머니(친정어머니)의 이야기



“며느리는 자신의 양육법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려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텐데... 이유식 전쟁을 하는 느낌이에요.”

“아침마다 딸네 집으로 출근을 가요. 그런데 파출부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요, 시집살이가 따로 없네요.”

어느 며느리(딸)의 이야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다 잘 키웠다며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시어머니가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맞벌이 하는 딸 생각 못해주는 친정엄마 때문에 섭섭하죠. 같은 여잔데 어쩔 이렇게 이해를 못해 주실까요?”

Tip. 이렇게 바꿔 생각한다면?

웰컴 투 시월드&처월드, 배려의 한 마디로 분위기 전환!

어느 시월드(처월드)의 이야기

“연휴에도 출근하는 며느리 때문에 서운함이 쌓이네요.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며느리라는 생각을 하면 뿌듯합니다.”

어느 며느리(사위)의 이야기

“아무 준비도 필요 없다고 하신 어머니 말씀이 사실은 많이 헛갈려요. 솔직하게 표현을 해달라고 애교있게 말을 해보는 게 좋겠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그간 소원했던 친지들과 달 밝은 밤 술 한 잔 기울이며 웃다보면 ‘역시 가족밖에 없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명절하면 기대보다 ‘스트레스’가 떠오른다. ‘대화’와 ‘소통’이 답이라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의 사이마저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몰아내고 있다.

서울가정문제연구소 김미영 소장은 이러한 세대 갈등의 예방수칙으로 다음의 3가지 원칙을 말한다. **첫 번째는 ‘차이를 이해하라’**다. 오랜만에 한데 모여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명절, 충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관심사에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용적인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 삶의 경험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데 해결의 열쇠가 있다. **두 번째는 ‘때론 직면하라’**다.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 보자.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사소한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나’도 아닌 ‘남’이 마음에 꼭 들 수는 없는 법. 나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면 남의 실수에도 너그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맛있게 말하라’**다. 공개적인 칭찬과 감사의 말은 그때그때 전하자. 관심 어린 말투와 태도를 취한다면 명절 가사 노동을 조금밖에 돕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미움받거나 오해 사는 일 없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황혼육아, 부모는 기쁜 마음, 자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시어머니(친정어머니)의 이야기

“생각해보니 저도 첫 아이를 키울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며느리도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겠죠.”

어느 며느리(딸)의 이야기

“오랜 세월 자식을 키우며 고생하신 엄마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닐텐데... 엄마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야겠어요.”

저금리시대 은퇴월급 만들기

글_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옛날에 오랫동안 굶주림으로 힘겨워하다 쟁기를 던지고 벼슬살이에 나갔지. 가족 돌보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 추위와 굶주림은 나를 움짍달짝 못하게 했지.”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이 29살에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며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말이다. 벼슬에 뜻이 없었지만,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었음이 짐작된다. 결국 그는 마흔 살쯤에 낙향하며, “더 이상 쌀 다섯 되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쌀 다섯 되는 요즘 같으면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 월급이 입에 풀칠하는 호구지책(糊口之策)의 중요한 수단인 점은 도연명이 살던 1,60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젊었을 때는 물론, 은퇴 이후에도 월급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 금리가 예전만 못하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기가 녹록지 않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퇴 후에도 월급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이상적

연금으로 월급 만들기

은퇴 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금이다. 연금은 매달 월급처럼 수령할 수 있어 가장 정석으로 여겨진다. 젊은 시절 수입의 일정수준을 따로 떼어내 노후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사실상 가장 확실하게 은퇴월급을 마련할 수 있다. 소위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 잘 쌓아도 매달 100만 원 가량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정부나 회사가 알아서 관리하고 챙겨준다. 때문에 개인연금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준비한다면 은퇴 후 월급 만들기는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가장 일반적

목돈으로 월급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가장 흔하게 활용한다. 정기적인 지출이 요구되는 연금준비가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 여력이 될 때마다 틈틈이 저축하고, 이렇게 모은 자금을 노후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가 저축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은행예금을 통해서 은퇴 후 매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대략 5억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한다. 은행예금 금리가 최근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6%(한국은행, 예금은행 수신금리)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로 매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5억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련한다고 해도 단순히 은행에 묶어두는 방법은 다소 비효율적이므로 은행예금 외에 다양한 투자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가장 현실적

부동산으로 월급 만들기

부동산을 활용한 은퇴 후 월급 만들기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 가계 대부분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방법이 주택연금이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평생, 혹은 본인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것이다. 60세부터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4억 5천만 원 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70세부터 받는다면 3억 원의 주택으로도 가능하다.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자라면 농지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과 유사한 방식인데, 3억 원의 농지가 있다면 65세부터 종신토록 매달 109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급 만들기

수익형 부동산 구입도 좋은 방법이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매월 임대수익,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통칭한다. 수익률의 경우 은행금리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부동산을 구입할 정도의 목돈이 있다면 이 방법이 효율적이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의 가능성이 있고, 매매에 따른 세금과 중개수수료, 유지보수 비용 등 관리가 어려우며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람쥐부부의 노후쉼터, 주택연금

글_ 이상영



주택연금 출시 7주년 기념 고객체험수기 공모전에
서 장려상을 수상한 이상영 고객의 글입니다. 주택
연금을 통해 삶의 여유를 누리게 된 부모님의 이야
기, 그 따뜻한 사례를 함께 만나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다람쥐 60대 부부의 딸입니다. 왜 다람쥐냐고요? 두 분 모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잠깐의 쉼도 없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계시거든요.

잠깐 저희 부모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엄마. 엄청난 슈퍼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에게는 조금의 즐거움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늦은 시간에 집 청소를 다 마치고는 바닥이 반짝반짝하게 빛나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밤새 비가 오면 평소보다 30분 이른 5시 30분에 일어나서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시고는 몸살을 앓으면서도 창밖으로 햇살이 더 환하게 보이지 않느냐며 자량을 하신다니까요. 엄마 못지않게 부지런한 아빠. 철저하게 지켜지는 운동시간. 누가 지시한 것도,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도 어김 없으세요. 사실 저희 아빠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착실하게 일해서 점점 자신의 꿈과 가까워지는 듯 했던 51세.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다섯 식구가 마음 편히 살아보자고 다짐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아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수술 후 전신의 반쪽이 마비됐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2급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작은 쉼터, 우리집!
주택연금을 만나고 달라진 삶의 여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니 다섯 식구가 푹푹 뭉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더 열심히 직장을 다니셨고 구직 중이던 저는 아빠의 병수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맞이한 상황에 아무런 의지도 없고 슬픔만이 가득한 아빠를 일으켜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지를 준 것은 남은 네 식구의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하며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던 엄마. 바쁜 직장생활 중에서도 매일 아빠에게 전화를 거르지 않던 언니.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아빠 옆에서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걸어주는 막내딸. 불가능하다고 하기 싫다고 말하는 아빠를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으실 수 있게 노력한 저 둘째딸까지. 다섯 식구의 노력으로 다시 아빠는 걸음을 걷고 조금씩 말씀도 하시더니 10년째인 지금은 혼자 운동을 다니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딸이 결혼을 했고, 엄마는 빠듯한 생활비와 아빠의 병원비 등으로 고된 직장생활을 이어 가셨습니다. 4년 전에는 외할머니까지 쓰러지셔서 말씀은 안하셨어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막막한 노후준비를 앞두고 매번 근심을 더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세 딸들도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주택연금의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은 언니였습니다. 회사 사람이 가입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시작하자는 것이었죠. 남은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딱 하나인지라 엄마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딸들이 많은 사례와 정보를 찾아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주택연금을 확실히 알아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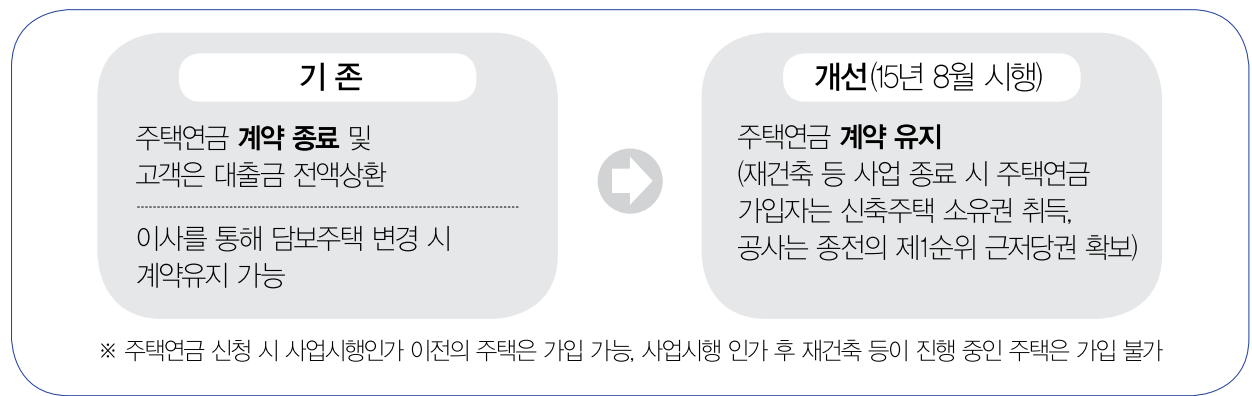
60세가 되던 해, 엄마는 드디어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서류접수를 하면서도 ‘이거 잘못되면 어찌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의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이후로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도 조금 이나마 해소되고 ‘이제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잘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도 생깁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니 주택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요.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면서 그간 병원비와 생활비로 마음까지 함께 작아진 엄마가 어느 날 손주에게 주시겠다며 빵을 한 봉지 사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할 때 빵 정도는 마음껏 사야겠다”며 활짝 웃으십니다. 친정에 놀러 올 때마다 사다드린 많은 빵보다 본인이 마음의 여유를 내어서 사 오신 빵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이제야 마음 한 켠이 놓여서 “내가 아파도 되겠구나” 하시는데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이 걱정 되고 답답하셨겠구나 싶어서요. 주택연금은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의지할 곳이 있는 작은 쉼터’ 같은 여유도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저도 솔직히 이제는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엄마가 부럽기까지 하네요. 이제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까지 주택연금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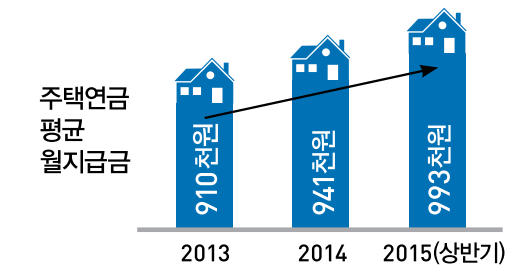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담보주택 재건축 등 되어도 주택연금계약 유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어도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이 예상돼 가입을 망설이던 가구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24% 증가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3,0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2명)보다 2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고령층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 고제현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받는 연금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령층 소비를 진작시키는 주요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2013년 91만 원, 2014년 94만 원, 2015년 상반기 99만 원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용배 부사장 임명

주택금융공사는 7월 20일, 정용배 전 용인시 부시장을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정 부사장은 경기도 주택과장, 도시주택실장, 부천시와 화성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주택·행정전문가로, 향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금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좌성초교 인근 벽화작업 진행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12일, 부산 동구 이바구길에서 벽화 그리기 작업을 펼치고 왔다.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벽화작업은 부산 동구청, 동구자원봉사센터 등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공사 관계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 교육 진행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취약계층인 시니어들에게 IT활용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사회·경제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업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지원’과 ‘시니어 IT 창업 교육’으로 나뉜다. ‘정보화교육지원’은 기초과정과 실용과정으로 구성되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니어 IT 창업 교육’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앱 개발, 홈페이지 및 쇼핑몰 관리 등 온·오프라인 창업을 위한 5개월 교육과정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55세 이상 신청 가능하며 각 17개 시도의 봉사단, 일자리교육기관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 02-2110-2974

한국정보화진흥원 ☎ 02-3660-2552 www.istudy.or.kr



시니어를 위한 연극축제 ‘제2회 시니어 시어터 페스티벌’

극단 그림연극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제2회 시니어 시어터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연극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시니어들을 위해 기획된 시니어 시어터 페스티벌은 지난해 제1회 공연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연극으로 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전시부스 등을 운영하여 지난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연극 무대에 서는 시니어 배우들의 열연과 그들을 통해 동일한 희망을 그려볼 수 있는 시니어 관객의 교류의 장이 될 본 페스티벌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 시니어들에게 자아실현과 사회적인 만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일간 총 6회 공연, 입장료 12,000원)

문의 극단 그림연극 ☎ 02-945-7518

CULTURE EVENT

주택연금을 읽은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음호에 반영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구독을 희망하시는 단체는 이메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e-mail : silver100@hf.go.kr**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하여 공연관람 기회를 선물합니다. 공연은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좋은밤 콘서트’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극장 대표 예술가, 그리고 뮤지션의 협업을 통해 펼쳐지는 본 공연은 방송인 남궁연 씨가 해설을 맡아 신선한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 좌석은 지정석으로 1인 2매를 드리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정보

일시 :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 /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홀

러닝타임 : 80분 / 연출/해설 : 남궁연(방송인, 드러머)

나의 사랑, 나의 효자, 주택연금!

글_ 제민주

중학교 교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협회 이사,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전국여성지도자 연수교육담당관, 88올림픽 자원봉사자 담당관까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은 누구일 까? 바로 주택연금의 열혈 홍보대사, 황옥순 씨다.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전 하는 웃음과 희망, 교양의 전도사! 황 옥순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황옥순 고객/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 투피스와 같은 색상의 모자로 한껏 멋을 낸 황옥순 씨를 만난 곳은 그녀가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사. 깔끔하고 오붓한 장소부터 맛있는 과일까지, 지사장님의 남다른 배려 속에 인터뷰가 진행됐다. “장우철 지사장님 덕분에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요.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아 전화를 자주 거는데 받을 때마다 바로 ‘네, 황옥순 홍보대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받는지 몰라요.”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황옥순 씨는 예전보다 확연하게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다. 특유의 화통함과 시원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을 지닌 그녀는 주택연금으로 인한 기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명예홍보대사를 자처했다고 말한다. 교사를 비롯해 기관 연구원, 교육담당관 등 항상 누군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온 그녀에게서 가르치는 기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느끼는 행복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은퇴 후, 팔각국수집에 도전했어요. 이전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분야였죠. 대출을 받아 시작했는데, 1년이 조금 넘어 실패했어요. 모두 빚으로 돌아왔죠. 막막했던 그때, 주택연금을 만났어요.” 벌써 3년 가까이 된 이야기.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도 연신 싱글벙글이다. 어려웠던 시간은 이미 지났고, 주택연금을 만난 지금은 행복하니까 웃을 수 있다는 그녀. “자식이 효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능했죠. 매월 꼬박꼬박 기분 좋은 효도를 받아요. 덕분에 지난 세월에 진 빚도 갚을 수 있었죠. 연금을 받으면서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려운 이를 위한 나눔도 참여하고, 해외 선교사를 돕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시니어 봉사자 관리도 맡고 있고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깐 이전보다 더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요.”

주택연금을 초라하지 않고 떳떳하고 자유로운 노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효자’라고 표현하는 황옥순 씨. 화백(화려한 백수)이라는 재미난 별명을 스스로에게 붙이며 삶의 주인공답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기분 좋은 감동이 밀려온다. 그녀의 솔직유쾌한 고백이 주택연금 독자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www.hf.go.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제3기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 | 9.14 ~ 10.26 매주 월요일 (14:00 ~ 17:00)

부산 | 9.16 ~ 10.28 매주 수요일 (14:00 ~ 17:00)

모집기간

2015. 8. 27(목) ~ 9. 7(월)

참가대상

은퇴준비에 관심 있는 전 국민 100명 이내 (서울 50명, 부산 50명)
※선착순 원칙으로, 은퇴교육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정

장 소

— 서울 : 신도림 디큐브시티 15층
— 부산 : 남구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7층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접수
— 방문접수 :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접수

특 전

— 참가비 없음
—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료증 발급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051-663-8477

교육일정

회차	주제	서울	부산
1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알아보기 / 나도 이제 스마트폰 전문가	9. 14	9. 16
2	지출과 세금관리 / 응급처치교육	9. 21	9. 23
3	소득관리 / 명사 특강	10. 5	10. 7
4	신용과 부채관리 / 인생이모작,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0. 12	10. 14
5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 가족과 소통하기	10. 19	10. 21
6	상속과 증여 / 수료식	10. 26	10. 28

※ 추석연휴 주일은 휴강합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